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BEST MANAGEMENT AWARDS IN KOREA

(주)두리잡 그룹 10년 연속	김두일 회장	(주)아람인테크 2년 연속	이서윤 대표이사
(주)애드브레인 10년 연속	유재운 대표이사	(주)인크레더블 2년 연속	손원익 대표이사
(주)에스티 10년 연속	최영환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2년 연속	양오봉 총장
NH농협은행 10년 연속	강태영 은행장	지앤피인베스트먼트(주) 2년 연속	김세연 대표이사
장암칼스(주) 8년 연속	구연찬 회장	K&K GLOBAL TRADING CO., LTD 2년 연속	고상구 회장
(주)다온닷컴 7년 연속	이태희 대표이사	한세실업(주) 2년 연속	김익환 대표이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7년 연속	정선용 이사장	한국공인회계사회 2회 수상	권오형 고문(전회장)
(주)리싸이클오피스 6년 연속	김태수 대표이사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
SG순우리인삼 6년 연속	최후자 회장	노블리에 결혼정보	김현찬, 백상엽 대표이사
코리아에프티(주) 6년 연속	오원석 회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은학 원장
멜츠에스테틱스코리아 5년 연속	유수연 대표이사	범한메카텍(주)	김성수 대표이사
보람그룹 5년 연속	최철홍 회장	(주)서연	유양석 회장
AJ네트웍스(주) 5년 연속	곽정호 대표이사	(재)손태희장학재단	김순옥 이사장
SC제일은행 5년 연속	이광희 은행장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경주시 4년 연속	최혁준 부시장	(주)아콘텍	라웅재 대표이사
(주)360퍼스펙티브 4년 연속	오영주 대표이사	HFBG	한선우 회장
(주)엠에스씨 4년 연속	김동훈 대표이사	WE호텔 제주	김성수 이사장
우아한여성의원 3년 연속	이동희 대표원장	(주)윤성산업개발	최유승 대표이사
(주)체리부로 3년 연속	김강홍 대표이사 겸 부회장	저탄소목조건축협회	김중헌 회장
하남시 3년 연속		코라그룹	오세영 회장
한국파파존스(주) 3년 연속	서창우 회장	푸에르코	이웅빈 대표이사
골드라인그룹 3회 수상	이흥기 회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
더시에나그룹 2년 연속	신동휴 회장		

제11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제 11 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BEST
MANAGEMENT
AWARDS
IN KOREA

제 11 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경제적 여건이
배움의 걸림돌 되어선 안돼”

전국 단위로 장학사업 확대한 손태희장학재단

(재)손태희장학재단

M 매경미디어
매경AX | 매경비즈



값 38,000원

M 매경미디어
매경AX | 매경비즈

재단법인 손태희장학재단
SonTaeHee Scholarship Foundation

M 매경미디어
매경AX | 매경비즈



“경제적 여건이 배움의 걸림돌 되어선 안돼”

전국 단위로 장학사업 확대한 손태희장학재단

손태희장학재단은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난 설립자의 삶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 환원의 가치를 실천해 온 장학기관이다. 손태희 설립자는 모교 남성학원의 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헌신하며 명문사학으로의 도약을 이끌었고, 그 신념을 장학사업으로 확장했다. 2011년 사재 100억 원 출연으로 출범한 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초기에는 남성학원 중심의 지원에서 출발했으나, 2023년 김순옥 이사장이 취임하며 이사장의 확고한 의지로 지역사회 교육 지원에서 전국 단위 장학사업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장학생 선발에는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불어 재단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교직원 연수와 교육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손태희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김순옥 (재)손태희장학재단 이사장

- S.T Aries Co. Ltd. 설립 및 대표이사 사장 (1981년 ~ 2005년)
- I.S. Auto. Ltd. 대표이사 사장 (2005년 ~ 현재)
-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7, 8, 9, 10, 12대 회장 (2006년 ~ 2020년)
- 학교법인 남성학원 이사 (2011년 ~ 2021년)
- 학교법인 남성학원 이사장 (2021년 ~ 현재)
- 제8, 9대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 (2022년 ~ 2025년)
- 재단법인 손태희장학재단 이사장 (2023년 ~ 현재)
- 국민훈장(석류장) 수상 (2007년)
-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여성 CEO 경영대상 수상 (2009년)
-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수상 (2012년)
-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대상(창조경영) (2015년)
- 국민훈장(모란장) 수상 (2017년)

장학재단의 탄생: 배움의 빛을 사회에 돌려주다

손태희 설립자가 사업가로서 성공을 이루던 시기, 어린 시절 배움의 추억이 어린 남성학원은 캠퍼스 이전에 따른 재정 악화와 운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동문과 학교 관계자들의 거듭된 요청 끝에 1989년 학교 운영을 맡게 됐다.

이렇듯 남성학원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손태희 설립자는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기숙사 건립과 교육시설 개선,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며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더불어 깊은 통찰력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운영의 안정을 이끌고 교육환경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였다. 그 결과 남성학원은 다시금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회사 (주)IS테크 주식을 기증해 학교 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구조를 고민한 결단이었다.

이 같은 교육에 대한 애정과 철학은 장학사업으로 이어졌다. 손 설



남성학원 전경(남성중, 이리남성여중, 남성고, 이리남성여고).



손태희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 김순옥 이사장(좌)과 손태희 설립자(우).

립자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2011년 보당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초기에는 남성학원 산하 4개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뒷받침했다.

그러다 2023년 재단 명칭을 ‘손태희장학재단’으로 변경하며 전국 단위 장학사업을 본격화했다. 재단의 기본재산도 2015년과 2024년 두 번의 증자를 통해 104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재단은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교직원 연수와 교육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에 손태희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예정이다.

장학의 새로운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이처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삶은 결국 교육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길로 이어졌다. 재단법인 손태희장학재단은 설립자의 뜻을 담아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미래를 향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재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장학 혜택의 대상도 2023년부터는 김순옥 이사장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했다. 남성학원 소속이 아닌 다른 초·중·고등학교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단은 설립자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도전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재단의 지향점이다.



2025년 10월 25일 남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손태희장학재단 3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학생 및 학교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순옥 이사장.



경남 창원에서 열린 '2025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막식에서 세계 한민족 여성 리더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순옥 이사장.(앞줄 중앙 태극기 한복)

지난해 하반기 손태희장학재단은 '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설립자의 확고한 비전 아래 장학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장학생 선발에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 것은 두 해 전에 남성학원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된다. 재단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남성학원 학생과 전국 단위 학생들에게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손태희장학재단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4년간 총 4,198명의 학생에게 41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재단은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 인재 양성: 교직원 연수 지원 병행하다

올해 재단은 설립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장학사업의 새로운 도약



201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진행된 '2017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모란장 훈장을 수여한 후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순옥 이사장.

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보다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학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인재 양성의 실질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직원 연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교사의 전문성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장학금 지원의 효과를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향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재단의 의지를 보여준다. 재단은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립 15년을 맞은 손태희장학재단은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순옥 이사장은 "지금 학업과 재능 계발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희망"이라며 "설립자 손태희의 숭고한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장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옥 손태희장학재단 이사장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7, 8, 9, 10, 12대 회장(2006년~2020년)과 제8대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2022년~2025년)으로 재직하며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여성 경영인의 리더십을 보여왔다.



김순옥 이사장은 "설립자 손태희의 숭고한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장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